

2020년 임원 입후보자 등록자 공시

2020.10.19.

2020년 임원 선출 관련하여 입후보자 등록한 결과를 공시합니다.

- 이사 정원 8인 : 이사장 1, 이사 7,
감사 정원 2인 : 회계 1, 사업 1.
- 사임 임원 : 최기철이사, 장보영이사, 송난수감사
- 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순	소 속	이름	신청임원	생년월일	현 직책	비고
1	한드미	정문찬	이사장	19**.**.**.	대표	연임
2	밀머리	김태양	이사	19**.**.**.	대표	〃
3	어멍아방	강정연	이사	19**.**.**.	사무장	〃
4	지리산숲놀이	주윤창	이사	19**.**.**.	대표	〃
5	청량산풍경원	김석구	이사	19**.**.**.	대표	〃
6	열린마을	임진희	이사	19**.**.**.	대표	신임
7	소호산촌	김정화	이사	19**.**.**.	대표	〃
8	도령서당	정문호	이사	19**.**.**.	대표	〃
9	밀머리	김선아	감사	19**.**.**.	사무국장	연임
10	만선당	류시성	감사	19**.**.**.	센터장	연임(변경)

사단법인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이사장



2020년 임원 입후보자 정견

입후보 분야	성 명 (소속)	정견(政見)	비고
이사장	정문찬 (한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의 정체성과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유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사	김태양 (밀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전국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각 현장들이 日新又日新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이사	강정연 (어명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어명아방농촌유학센터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지역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년간 학교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유학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내 든 생각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도 없이 농촌유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학생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니 이제 농촌유학센터를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그 시기에 저희는 농촌유학협의회를 만나게 되었고, 협의회를 만나고 많은 현장과 현장활동가들과 소통하면서, 농촌유학의 정체성도 확립해 갈 수 있었고, 활동가들이 지쳐 있을 때 다시 힘을 얻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나 힘을 얻었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우리 협의회가 현장과 현장활동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사	주윤창 (지리산 숲놀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마다의 다양성을 다 담을 수 없는 평가규정 및 지침은 곧 각 센터의 활동을 제약하는 개목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센터들이 자기철학을 상실한 채, 농림부 지침에 순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자유요, 비민주성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자신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마치 문제를 가진 아이들처럼 취급되는 풍토를 각 센터 차원이 아니라,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교육감, 교육청을 상대하여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꾸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 임원 입후보자 정견

입후보 분야	성 명 (소속)	정견(政見)	비고
이사	김석구 (청량산 풍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발전을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실행지 유학센터 대표님과 농촌유학 활동가님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사	임진희 (열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촌유학 활동가님과 함께 농촌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하고, 유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게 농촌유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미래 교육으로써 농촌유학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이사	김정화 (소호산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유학은 마을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을은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 활기를 되찾고, 도시의 아이들은 마을에 살면서 시골살이와 자연체험, 사람들과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 합니다. 또 산촌유학을 통해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자 타 현장과 협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사	정문호 (도령서당 명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협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 도모에 작은 밑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	김선아 (밀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활동 현장들이 유학센터를 꾸려가는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가치관으로 수렴되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	류시성 (만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공동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합니다. 	